

'강진 불금불파'로 체류형 야간관광지 입지 굳혔다

4월부터 18회 운영...6천여명 발길
텐트촌 이용·체험에 2천여명 참여
9월 재개 가을철 맞춤 콘텐츠 공개



강진군 병영시장 일원에서 열린 불금불파 행사에 참가한 관광객들이 축제를 즐기고 있다.

<강진군 제공>

강진군의 대표 체류형 야간 관광 콘텐츠인 '2026년 상반기 불금불파(불타는 금요일엔 불고기와 파티를)' 행사가 관광객들의 뜨거운 호응 속에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인구 감소 위기 속에서 단순한 축제를 넘어 '생활 인구' 유입과 면 단위 지역경제 활성화의 새로운 성공 모델을 제시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25일 강진군에 따르면 병영면 병영시장 일원에서 열린 상반기 불금불파 행사는 지난 4월3일 첫 테이프를 끊은 후 전라병영성 축제와 농번기를 제외하고 지난 20일까지 총 18회에 걸쳐 운영됐다.

광주 등 인근 대도시권의 관광객을 타깃으로 삼은 이번 행사에는 총 5천333명의 발길이 이어졌으며, 병영 불고기 판매장과 청년 셰프존, 돼지빵, 아트마켓 등 행사장 내 판매 실적은 총 1억 2천200만원을 기록하며 사라져가던 전통시장에

강력한 활력을 불어넣었다. 특히 야간 관광의 핵심인 '텐트촌' 이용 및 체험 프로그램에는 2천401명이 참여해 체류형 관광지로서의 입지를 굳혔다.

강진군은 병영면이 품고 있는 풍부한 역사·문화 자원을 심분 활용해 불금불파를 지역 활력의 앵커 사업으로 집중 육성하고 있다. 특히 2025년 로컬브랜딩 활성화 지원사업의

일환인 '병영 감발스테이' 프로그램과 연계해 체류형 관광 기반을 대폭 확대했다. 감나무밭과 지역 식문화를 결합한 생활 체험형 프로그램인 감발스테이는 방문객이 스쳐 가

는 관광객이 아닌, 지역의 일상을 깊이 있게 경험하는 '생활 인구'로 자리 잡도록 유도하며 지역 상권과의 유기적인 연결고리 역할을 톡톡히 해냈다.

이번 상반기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군은 방문객 만족도와 개선 사항을 꼼꼼히 점검해 하반기 행사의 내실을 다질 계획이다.

하반기 불금불파 행사는 무더위가 꺾이는 오는 9월 중순 재개된다. 하반기에는 가을철 병영의 낭만적인 매력을 극대화한 '정원 참여' 프로그램과 '은행나무길 담장학교' 등 새로운 맞춤형 콘텐츠를 선보인다.

방문객이 직접 공간 조성에 참여하고 골목과 담장을 거니는 체험을 통해 병영을 '머무르고 싶고 다시 찾고 싶은' 매력적인 생활 관광 거점으로 만들어갈 방침이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2026년 상반기 불금불파를 찾아주신 수많은 관광객과 행사를 빛내준 지역 상인, 청년 셰프 등 모든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하반기에는 병영의 아름다운 가을 정취와 지역 고유의 색깔을 가득 담은 한층 풍성한 프로그램으로 다시 찾아뵙겠다"고 밝혔다. /강진=정영록 기자



해양경찰정비창-목포해양대, 정비 인력 양성

해양경찰정비창은 25일 "전남 국립목포해양대학교 대학본부에서 안교진 창장창 최부흥 국립목포해양대 총장은 함정 정비 분야 전문 인력 양성 및 기술 교류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이 보유한 전문 역량과 인프라를 공유해 현장 맞춤형 해양 인재를 육성하고 상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각 기관은 ▲함정 정비 최신 기술 및 인적 자원 교류 ▲수리 시설·장비 공동 활용 ▲기술 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에 적극 나선다. /목포=정해선 기자

특히 해양경찰정비창은 학생들에게 생생한 현장 견학과 실습 기회를 제공하고, 목포해양대는 정비창 직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맞춤형 전문 교육과 기술 연수 프로그램을 지원하며 시너지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안교진 해양경찰정비창장은 "양 기관의 인적·물적 자원을 상호 공유함으로써 함정 정비 분야의 전문성과 역량을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해양 실무형 인재 양성과 지역 상생 발전에 적극 이바지하겠다"고 말했다. /목포=정해선 기자

흥어 장수 문순득 기린다...신안 '국제 문페스타' 개막

내달 4일 세계마당아트진흥회 주관
흑산면 일원서...행사·인문학 강좌
아시아 전통 공연·특별전시 등 풍성

조선시대 험난한 바다를 표류하며 아시아 각국의 문화를 경험하고 돌아온 흥어 장수 문순득의 진취적인 삶을 기리는 뜻깊은 축제가 신안 흑산도에서 열린다. 25일 신안군에 따르면 오는 7월4일 흑산면 일원에서 전남도 지역대표 공연예술제에 선정된 '2026 신안 국제 문페스타'가 화려한 막을 올린다.

(사)세계마당아트진흥회가 주관하는 이번 축제의 주인공 문순득은 우이도 출신의 상인이다. 그는 1801년 흑산도에서 흥어를 사서 나주로 향하던 중 큰 풍랑을 만나 오키나와(류큐국), 필리핀(여송국), 마카오(오문), 중국(청나라)을 거쳐 3년2개월 만에 고향으로 돌아왔다. 표류 기간 겪은 이국적인 문화를 바탕으로 유배 중이던 정약전과 함께 '표해시말' 등의 소중한 기록을 남겼으며, 이는 현재 전남도 문화유산으로 지정돼 있다. 올해 축제는 주 행사와 인문학 강좌로 나눠 풍성하게 꾸려진다. 주 행사 무대에서는 마당극 '문순득 표류기'를 비롯해 그가 닿았던 국가들의 이색적인 공연 예술이 펼쳐진다. /신안=양훈 기자

또한 흑산도 철새박물관에서는 경기문화재단 실학박물관이 참여하는 특별전시가 열려 역사적 의미를 더한다. 부대행사인 '섬 로드 스펀라'는 2박3일 간 진행되는 체험형 인문학 강좌로, 사전 모집된 30명의 참가자가 우이도, 비금도, 도초도, 흑산도 등 문순득의 발자취가 서린 유산을 직접 답사하며 그의 삶을 입체적으로 체험하게 된다. 신안군 관계자는 "신안 국제 문페스타는 문순득이라는 독창적인 해양 인물 콘텐츠를 활용한 차별화된 공연예술축제"라며 "흑산도 여행을 계획 중이라면 축제가 열리는 7월 첫째 주 주말 방문을 적극 추천한다"고 전했다. /신안=양훈 기자

귀농·창업 5가구 '영암살래' 입주 완료

영암군의 빈집 리모델링 주거 지원 프로젝트인 '영암살래' 주택에 타 지역 거주자들이 입주를 마치고 지역 공동체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25일 영암군에 따르면 이번 영암살래 주택에 새 동지를 틈 이들은 총 5가구 8명이다. 귀농 준비 1가구, 창업 준비 1가구, 관내 취업

으로 경제활동을 시작한 3가구 등으로 구성됐으며 모두 타 지역에서 전입을 완료했다. '영암살래'는 지역 내 오랜 기간 방치된 빈집을 쾌적한 주거 공간으로 탈바꿈시켜 관외 이주 희망자에게 제공하는 사업으로, 이주 초기의 주거 비용 부담을 대폭 낮춰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유도하는 것이 핵심이다. /영암=나동호 기자

입주자는 보증금 120만원과 저렴한 월 임대료만 부담하면 최장 2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특히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등 필수 가전제품이 기본 풀옵션으로 지원돼 입주자들의 호응이 높다. 김신미 인구정책과장은 "'영암살래'가 단순히 거쳐 가는 공간을 넘어 완전한 영암 정착으로 이어지는 튼튼한 징검다리가 되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며 "다가오는 3차 입주자 모집과 앞으로 계속된 빈집 재생 사업에도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영암=나동호 기자



함평대전환발전위원회 관계자들이 지난 24일 빛그린국가산단을 방문해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함평군 제공>

함평대전환 발전위, 지방소멸 위기 극복 현장 행보

자연생태공원·빛그린산단 등 방문
지역 상권 연계 활성화 방안 모색

민선 9기 함평군수직 인수위원회인 '함평대전환 발전위원회'가 지역 경제 활성화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방 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현장 밀착 행보에 나섰다. 25일 함평군에 따르면 위원회는 전남 함평자연생태공원과 한국도로교통공단 교통안전교육원 건립 부지, 빛그린국가산단을 차례로 방문해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주요 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했다. 첫 일정으로 생태공원을 찾은 위원들은 체험형 콘텐츠 확대와 지역 상권 연계 방안을 논의했다. 이어 2030년 개원 예정인 교통안전교육원 부

지에서는 연간 1만3천여명의 교육생 방문에 따른 숙박 및 체류형 관광 활성화 전략을 점검하고, 기반 시설 조성에 따른 재정 부담을 꼼꼼히 살필 것을 주문했다. 또한 2028년 본격 가동을 목표로 하는 금호타이어 함평공장 조성 현장(빛그린국가산단)에서는 산업단지 활성화 방안을 심도 있게 모색했다. 위원들은 양질의 청년 일자리가 지방 소멸 극복의 핵심 열쇠임을 강조하며, 지역 인재 채용 확대와 기업·주민 간 상생 협력 체계 구축을 강력히 제안했다. 김형모 위원장은 "현장에서 확인한 과제들을 바탕으로 모든 사업이 군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경제적 파급효과를 철저히 분석하겠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이번 현장 점검에서 도출된 의견을 민선 9기 핵심 정책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함평=기영규 기자

완도군,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협업팀 선정

완도군이 25일 "기존의 관행을 깨고 군민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확실한 성과를 창출한 '2026년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 2명과 협업팀 1팀을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우수 사례 선정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투표와 완도군 적극행정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진행됐다. 개인 부문 우수 공무원으로 선정된 수산경영과 김충경 주무관은 7천여개의 양식 면허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완도군 어장도' 모바일 앱과 PC 프로그램을 자체 개발, 이를 통해 통일이 끊기는 해상에서도 오프라인 지도를 활용해 면허 위치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행정혁신을 이룩했다. 지역개발과 이도은 주무관은 소외되기 쉬운 소규모 섬까지 아우르는 '섬 개발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2025년도 관련 사업 전국 1위 달성과 함께 국비 54억원을 확보하며 도서 지역 주민들의 정주 여건 개선에 크게 기여했다. 협업팀으로 선정된 보길면 농수산팀과 개발팀은 과거 태풍 '블라벤' 이후 장기간 방치된 중리마을 해양 쓰레기 약 1천500을 주민 및 관련 부서와 합심 발굴해 정비하는 성과를 냈다. /완도=윤보현 기자



해남군, '찾아가는 장난감도서관' 호응

어린이집 순회...2주 이용 후 회수

해남군이 접근성 문제로 읍내 장난감도서관 방문이 어려운 원거리 면 단위 영유아들을 위해 '찾아가는 장난감도서관'을 운영해 호응을 얻고 있다. 25일 해남군에 따르면 최근 관내 원거리 어린이집 3곳을 방문해 아이들에게 인기가 높은 다채로운 장난감과 놀이 교구 40여점을 전달했다. <사진> 대여한 장난감은 아이들이 2주간 마음껏 이용한 뒤 도서관에서 다시 회수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를 통해 아동친화도시 해남의 맞춤형 보육 서비스를 곳곳에 확산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해남군 가족어울림센터 내에 마련된 장

난감도서관은 총 254종, 768점의 풍성한 장난감을 보유하고 있다. 특히 돌·백일상 및 한복 대여 등 실속 있는 가정 지원 서비스도 함께 제공해 인기가 높다. 관내 0-7세 영유아 가정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군민 전용 앱인 '해남소통넷'을 통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다. 연회비는 개인 2만원, 단체 3만원이며, 2차 이상 다자녀 가정 등 취약계층은 전액 면제된다. 해남군 관계자는 "지리적 한계로 소외받는 아이들에게 찾아가는 장난감 도서관 서비스가 즐거운 성장의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아이 키우기 좋은 해남을 만들기 위해 보육 사각지대 해소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해남=박필용 기자